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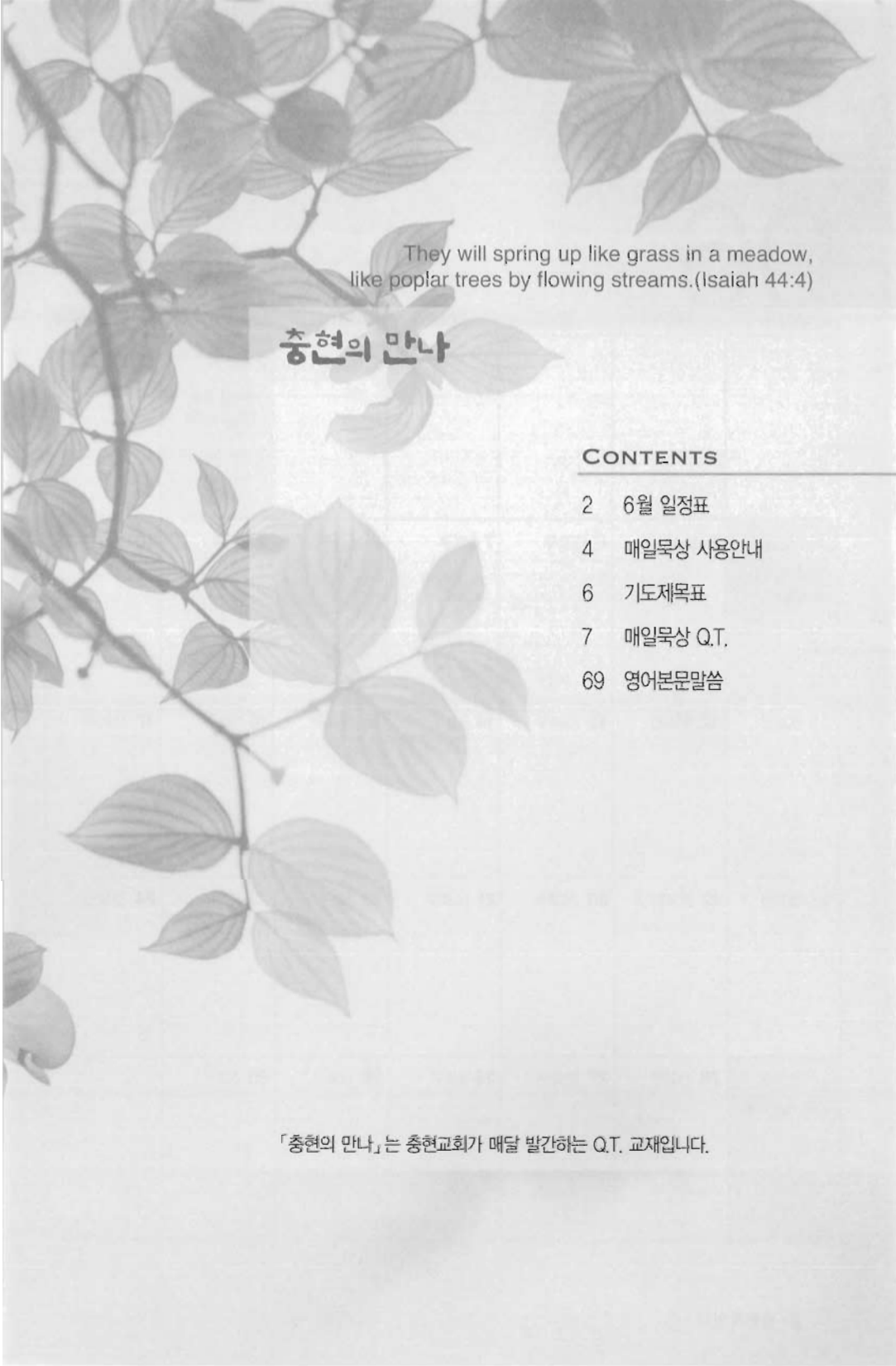
2017 0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6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2교구	2 4교구 한규삼 목사 취임감사예배	3 전교인
4 전교인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5 전교인	6 13교구	7 5교구	8 15교구	9 6교구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16교구	14 8교구	15 17교구	16 9교구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18교구	21 14교구	22 7교구	23 1교구	24 전교인
25 전교인 제3차 학습·세례식	26 전교인	27 10교구	28 2교구	29 11교구	30 3교구	

교회 주요 일정

6월 2일(금)	한규삼 목사 취임감사예배
6월 4일(주일)	성령강림주일(오순절)
6월 25일(주일)	제3차 학습 · 세례식

6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목사님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게 하소서.
- ⑧ 중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믿음과 사랑으로 작정한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1

목요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본문 요한복음 12:44~50 찬송가 90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4~46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에 지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47~5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되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불신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은 아버지가 일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⁴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⁴⁵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⁴⁶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⁴⁷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⁴⁸ 나를 저버리

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⁴⁹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⁵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온 몸을 씻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7절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는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11절 말씀으로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겠다던 베드로가 씻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고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시며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최후의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사랑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¹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²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³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⁵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⁶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⁷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⁸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⁹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¹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¹¹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행한 섬김을 따라 제자들도 섬기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택한 자와 배반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18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1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주와 선생으로 아랫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는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주님이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역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17절 말씀으로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8~20절 말씀으로 제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미리 일러둠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임을 상기시키시며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높아지고 권력을 얻고 또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²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³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⁵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⁶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⁷ 너희가 이것을 알

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⁸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⁹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¹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본문 요한복음 13:21~30 찬송가 407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란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떡 조각을 주시면서 밝히시고 사탄에게 영혼이 팔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고 바깥 어두움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1~24절까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심히 민망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반하여 팔 제자를 지목하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운 사도 요한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려 합니다. 둘째 단락은 25~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질문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며 떡 한 조각을 가롯 유다에게 주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8~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의아해 하는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캄캄한 밤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롯 유다를 피해자로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롯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은 당시 관습상 잔치의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 조각을 집어 주는 특별한 대접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롯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가롯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뿌리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끝까지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롯 유다처럼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기도 제목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빛 되신 주님께 나아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²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²²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²³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²⁴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²⁵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²⁶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딱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²⁷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²⁸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²⁹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³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강화에서 자신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로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여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기라고 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31~33절까지 내용은 여기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반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34~35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38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서로 사랑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자격과 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³²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³³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³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³⁵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³⁶ 너희가 서로 사

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³⁷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³⁸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³⁹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예비하신 후에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며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둘째 단락은 8~12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²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³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⁵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⁷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⁸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

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특징짓는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뉘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3~14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것이든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둘째 단락은 15~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며, 그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단락은 18~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시지만 다시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며, 제자들은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21~24절까지 말씀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분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게 하소서.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¹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¹⁵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¹⁶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¹⁷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¹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¹⁹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

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²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²¹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²²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선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²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²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분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실 것과 이 땅에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25~28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단락은 29~31절까지의 내용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종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내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겁을 내지 말고 오직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²⁵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²⁶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²⁷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²⁸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²⁹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³⁰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³¹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 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되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죽은 가지를 치십니다. 여기서 죽은 가지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7~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열매는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농부는 그 어떤 농부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가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부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무 가지와 같이 예수님 밖에 거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¹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²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³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⁷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⁸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9~11절까지의 내용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서 참 사랑이 가능하게 되며, 그 사랑을 행할 때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명령하신 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12~16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는 종으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택하심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버지께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일평생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 기도 제목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¹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¹²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¹³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¹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¹⁵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¹⁶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17절).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 매일의 삶에서 늘 동행하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임을 제차 강조하시고 있습니다(23절).

그렇다면,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본문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나, 가장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해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2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3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3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3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

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3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3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3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문 요한복음 16:1~11 찬송가 324장

» 본문 해설

본문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예수님의 실족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역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기도록 역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출교와 사망의 그림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이것을 기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부에게로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는 성자가 성부께 가시는 사건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의로우신 분으로 확증되고 높아지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의 사탄이 심판받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최종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심을 알려줄 것이며,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을 심판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실족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
 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
 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
 는 일이라 하리라 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
 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
 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
 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
 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
 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 자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

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
 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
 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
 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
 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성자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자가 제자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함을 설명하며 제자들을 견고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날'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 날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여자의 해산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날을 여인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그 여인의 기쁨은 과거 고통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근심하지만 너희가 다시 기뻐 할 날이 올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성자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한숨과 고통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인이 기뻐 할 날과 같은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고난 속에서 마음이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크다면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곤고한 매일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성취의 날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¹²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¹³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¹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¹⁵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¹⁶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¹⁷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나 하고 ¹⁸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¹⁹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²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²¹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²²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²³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²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기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날을 잊지 말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비유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는 아버지로 부터 온 성자 그리스도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믿음에 대해 권면하십니다. 다시 성자 예수님 자신이 홀로 남겨질 것과 너희 제자들이 흠이질 것을 경계하며, 우리 예수님 자신이 외롭지 않고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 계셨음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이 지식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확증시켜주는데 있습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그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게 될 것 같아, 막연함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승리했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이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케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여!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²⁵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²⁶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²⁷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²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²⁹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³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³¹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³²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³³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성자가 원래 가졌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이루라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음을, 그래서 이후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속죄임을 기억하여,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죄를 속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고, 그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적용케 하신 사역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오늘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할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용서와 속죄, 그리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기억하여 참된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사랑의 주님, 영생의 기쁨을 기억하여 참된 자유와 대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⁵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⁶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⁷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⁸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⁹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¹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제자들도 연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연합하여 보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합과 함께 그들이 세상에 남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하시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성자인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파송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땅에 보내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 하여도, 슬퍼하거나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 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¹³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¹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

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¹⁵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¹⁶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¹⁷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¹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¹⁹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가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과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같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됨이며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시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려야 하는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직장 and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²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²¹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²²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²³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²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²⁵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²⁶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가셨을 때 가롯 유다가 여러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인양성의 연합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4절).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그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그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으며,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가는 데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오늘도 나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²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
라 ³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
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⁴ 예수께
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⁵ 대답하되 나사렛 예
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⁶ 예수
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

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⁷ 이에 다
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⁹ 이
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
게 하려 함이러라 ¹⁰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
고라 ¹¹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소와 대상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가 곁에 있던 아랫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오늘 참 신이 인간 손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베드로에게 옮겨집니다. 그에게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지난 과거에 베드로 자신이 귀를 잘랐던 말고를 등장시키며, 그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충심을 다했던 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도망하는 장면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날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앞에서의 도망하는 모습을 거울로 보게 합니다. 또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가 지금 닭 울기 전에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변함없게 하옵소서.

¹²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
 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¹³ 먼저 안나스에
 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인 가아바의 장인이라 ¹⁴ 가아바는 유대인들
 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
 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¹⁵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
 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¹⁶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
 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
 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¹⁷ 문 지키는 여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
 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¹⁸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¹⁹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²⁰ 예
 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
 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²¹ 어찌하여 내게 묻
 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
 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
 라 ²²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
 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²³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²⁴ 안나
 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아바
 에게 보내니라 ²⁵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
 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
 라 하니 ²⁶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
 니하였느냐 ²⁷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끌려 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심문을 받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끌고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가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예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신경 고백속에서도 본디요 빌라도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형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선언을 듣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끌고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었기에, 당시 로마법으로 십자가 형틀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역사의 이루심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자세한 질문과 예수님의 자세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음을 빌라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문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끌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며, 결국 죄 없음과 그럼에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명확히 하고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죄 없으신 분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 없으신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형벌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본디요 빌라도의 통치 가운데 죄인이라 인정되고, 고난을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며,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죄인이라는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²⁸ 그들이 예수를 가바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²⁹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³⁰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³¹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³²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³³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³⁵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³⁶ 예수께서 대답하

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³⁷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³⁸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³⁹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⁴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1~2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긴 했지만 그들의 심문에서조차 어떤 도덕적, 정치적 문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총독 빌라도가 세 번이나 증언한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7절).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붙인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바로 그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야말로 당연히 죽어야 할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선고권을 가진 빌라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비롯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들의 더 큰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11절).

>>> 기도 제목

세상 죄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¹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²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³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⁴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⁵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⁶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

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⁷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⁸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⁹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¹⁰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¹¹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걸어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십니다(17~18절). 예수님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죄인의 하나로 해아림을 받으신채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사렛 유대인의 왕” 명패가 달립니다(19~20절).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이 왕” 이라고 죄목을 고쳐 쓰라고 항의했습니다(21절). 하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는 말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의 죄수에게 붙여진 ‘왕’ 의 칭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사실은 모든 언어로 온 천하에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재판 결과를 정리했습니다(22절).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온 세계에 미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죄인 중의 하나로 해아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이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¹²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¹³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¹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¹⁵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¹⁶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¹⁷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¹⁸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¹⁹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²⁰ 예수께서 못 박하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²¹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²²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로마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군병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네 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23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옷까지 완전히 벗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24절). 엄청난 고통을 온전히 당하신 예수님은 심한 탈수증세로 인해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했습니다(28절). 이에 군병들이 값싼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완성하였으며, 더불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와 환희의 외침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은 실패한 종교지도자로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의 인생,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자축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역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의 눈을 새롭게 조명해 주소서.

²³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²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²⁵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²⁶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²⁷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²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²⁹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³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대인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31절).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죄인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것입니다. 하지만 채찍질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잔인한 요청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33~34절).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시 34:20). 대신 한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36~37절; 눅 12:10). 그러자 죽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수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수난을 받으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물과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언대로 모든 수난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 기도 제탁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참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³²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³³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³⁴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³⁵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³⁶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³⁷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³⁸또 다른 성경에 그

들이 그 찢은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³⁹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⁴⁰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⁴¹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⁴²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⁴³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안식일이 지나고 삼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1절).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2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는데 시신을 감췄던 삼베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반듯하게 개켜 있었습니다(5~8절). 예수님은 시신을 감췄던 수의를 벗고, 시신을 가둔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빈 무덤을 뒤로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는 시편 16장 10절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몇 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성경 말씀을 좇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졌던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케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쌓아 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²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³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⁴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⁵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

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⁶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⁷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⁸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⁹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¹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빈 무덤을 지키며 울고 있었습니다(11절).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았지만(12~14절)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15절). 그 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랍오니”(나의 선생님)하고 대답합니다(16절).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르든 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말하는 자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처해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어 새로운 자각과 기쁨을 갖게 해주셨듯이 오늘 현실의 도전 앞에 상심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오랜 사귀이 시간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고 주님의 명령에 민감한 제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내 주님의 목소리에 언제나 민감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¹¹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¹²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¹³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¹⁴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¹⁵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졌든 어디 두었

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¹⁶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¹⁸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¹⁹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낙담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유령인줄 알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19절)라고 하시면 그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20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21절). 그런데 첫 번째 평안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평안은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22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께 붙들리어 날마다 삶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¹⁹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²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²¹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

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²²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들었지만 자기 눈으로 손의 못 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대답한 의심많은 제자입니다(24~25절). 예수님은 8일 만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26절).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27절).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의심을 기꺼이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합니다(28절). 그러자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하다고 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은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내 맘 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 기도 제목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굳건히 믿게 하소서.

²⁴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²⁵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²⁶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²⁷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

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²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³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³¹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확실히 목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하며 갈릴리 수도인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1~2절).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처럼, 그날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3절).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4절).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쑥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6절). 제자들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7~8절).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처음 소명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 차갑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얼어붙은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책망대신 떡과 물로 먹여주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¹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²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³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⁶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⁷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⁸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⁹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¹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¹¹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¹²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¹³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¹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하신 것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헌신을 단언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15~17절).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믿고 무너진 제자에게 '사랑'의 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우정조차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확신이나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은 오히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양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⁵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⁶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⁷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⁹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²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²¹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²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²³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²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²⁵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6월 1일 목요일

John 12:44~50

- 44 Then Jesus cried out, "When a man believes in me, he does not believe in me only, but in the one who sent me.
45 When he looks at me, he sees the one who sent me.
46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47 "As for the person who hears my words but does not keep them, I do not judge him. For I did not come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it.
48 There is a judge for the one who rejects me and does not accept my words; that very word which I spoke will condemn him at the last day.
49 For I did not speak of my own accord, but the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50 I know that his command leads to eternal life. So whatever I say is just what the Father has told me to say."

6월 2일 금요일

John 13:1~11

- 1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 Jesus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2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3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4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5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the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6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7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8 "No," said Pe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 9 "Then, Lord," Simon Peter replied, "not just my feet but my hands and my head as well!"
10 Jesus answered, "A person who has had a bath needs only to wash his feet; his whole body is clean. And you are clean, though not every one of you."
11 For he knew who was going to betray him, and that was why he said not every one was clean.

6월 3일 토요일

John 13:12~20

- 12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13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14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15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16 I tell you the truth,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17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18 "I am not referring to all of you; I know those I have chosen. But this is to fulfill the scripture: 'He who shares my bread has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19 "I am telling you now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that I am He.
20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accepts anyone I send accepts me; and whoever accepts me accepts the one who sent me."

6월 4일 주일

John 13:21~30

- 21 After he had said this,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22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at a loss to know which of them he meant.
23 One of them,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reclining next to him.
24 Simon Peter motioned to this disciple and

said, "Ask him which one he means."

- 25 Leaning back against Jesus, he asked him, "Lord, who is it?"
- 26 Jesus answered, "It is the one to whom I will give this piece of bread when I have dipped it in the dish." Then, dipping the piece of bread, he gave it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 27 As soon as Judas took the bread, Satan entered into him. "What you are about to do, do quickly," Jesus told him,
- 28 but no one at the meal understood why Jesus said this to him.
- 29 Since Judas had charge of the money, some thought Jesus was telling him to buy what was needed for the Feast, or to give something to the poor.
- 30 As soon as Judas had taken the bread, he went out. And it was night.

6월 5일 월요일

John 13:31~38

- 31 When he was gone,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 32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glorify the Son in himself, and will glorify him at once.
- 33 "My children,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You will look for me, and just as I told the Jews, so I tell you now: Where I am going, you cannot come.
- 34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 35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 36 Simon Peter asked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replied, "Where I am going, you cannot follow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 37 Peter asked, "Lord,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 38 Then Jesus answered, "Will you really lay down your life for me? I tell you the truth,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6월 6일 화요일

John 14:1~12

- 1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 2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 3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 4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 5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 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 7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 8 Philip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 9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 10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at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I say to you are not just my own. Rather, it is the Father, living in me, who is doing his work.
- 11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at least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miracles themselves.
- 12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6월 7일 수요일

John 14:13~24

- 13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 14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 15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 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 18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 19 Before long, the world will not see me any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 20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 21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 22 Then Judas (not Judas Iscariot) said, "But, Lord, why do you intend to show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 23 Jesus replied, "If anyone loves me, he will obey my teaching.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 24 He who does not love me will not obey my teaching. These words you hear are not my own; they belong to the Father who sent me.

6월 8일 목요일

John 14:25~31

- 25 "All this I have spoken while still with you.
- 26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 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 28 "You heard me say, 'I am going away and I

am coming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be glad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 29 I have told you now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 30 I will not speak with you much longer, for the prince of this world is coming. He has no hold on me,
- 31 but the world must learn that I love the Father and that I do exactly what my Father has commanded me. "Come now; let us leave.

6월 9일 금요일

John 15:1~8

- 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 2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 3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 4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 6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 7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 8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6월 10일 토요일

John 15:9~16

- 9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 10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 11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 12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 13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 14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 15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 16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fruit that will last. Then the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6월 11일 주일

John 15:17~27

- 17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 18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 19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 20 Remember the words I spoke to you: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 21 They will treat you this way because of my name, for they do not know the One who sent me.
- 22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Now, however,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 23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 24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what no one else did,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ey have seen these miracles, and yet they have hated both me and my Father.
- 25 But this is to fulfill what is written in their Law: 'They hated me without reason.'
- 26 "When the Counselo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 27 And you also must testify, for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6월 12일 월요일

John 16:1~11

- 1 "All this I have told you so that you will not go astray.
- 2 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 in fact, a time is coming when anyone who kills you will think he is offering a service to God.
- 3 They will do such things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or me.
- 4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will remember that I warned you. I did not tell you this at first because I was with you.
- 5 "Now I am going to him who sent me, yet none of you asks me, 'Where are you going?'
- 6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you are filled with grief.
- 7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 8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 9 in regard to sin, because men do not believe in me;
- 10 in regard to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where you can see me no longer;
- 11 and in regard to judgment,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now stands condemned.

6월 13일 화요일

John 16:12~24

- 12 "I have much more to say to you, more than you can now bear.
- 13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and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come.
- 14 He will bring glory to me by taking from what is mine and making it known to you.
- 15 All that belongs to the Father is mine. That is why I said the Spirit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make it known to you.
- 16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 17 Some of his disciples said to one another, "What does he mean by saying,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18 They kept asking,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We do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19 Jesus saw that they wanted to ask him about this, so he said to them, "Are you asking one another what I meant when I said,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20 I tell you the truth, you will weep and mourn while the world rejoices. You will grieve, but your grief will turn to joy.

21 A woman giving birth to a child has pain because her time has come; but when her baby is born she forgets the anguish because of her joy that a child is born into the world.

22 So with you: Now is your time of grief,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take away your joy.

23 In that day you will no longer ask me anything. I tell you the truth, my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24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6월 14일 수요일

John 16:25~33

25 "Though I have been speaking figuratively, a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use this kind of language but will tell you plainly about my Father.

26 In that day you will ask in my name. I am not saying that I will ask the Father on your behalf.

27 No,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28 I came from the Father and entered the world; now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29 Then Jesus' disciples said, "Now you are speaking clearly and without figures of speech.

30 Now we can see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that you do not even need to have anyone ask you questions. This makes us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31 "You believe at last!" Jesus answered.

32 "But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33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6월 15일 목요일

John 17:1~10

1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time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2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3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4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5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6 "I have revealed you to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obeyed your word.

7 Now they know that everything you have given me comes from you.

8 For I gave them the words you gave me and they accepted them. They knew with certainty that I came from you, and they believed that you sent me.

9 I pray for them. I am not praying for the world, but for those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10 All I have is yours, and all you have is mine. And glory has come to me through them.

6월 16일 금요일

John 17:11~19

11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12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at name you gave me.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 13 "I am coming to you now, but I say these things while I am still in the world,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 14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 15 My prayer is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 16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it.
- 17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 18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 19 For them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oo may be truly sanctified.

6월 17일 토요일

John 17:20~26

- 20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 21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 22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 23 I in them and you in me.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 24 "Father, I want those you have given me to be with me where I am, and to see my glory, the glory you have given me because you loved m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 25 "Righteous Father, though the world does not know you, I know you, and they know that you have sent me.
- 26 I have made you known to them, and will continue to make you known in order that the love you have for me may be in them and that I myself may be in them."

6월 18일 주일

John 18:1~11

- 1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Jesus left with his disciples and crossed the Kidron Valley. On the other side there was an olive grove, and he and his disciples went into it.
- 2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 3 So Judas came to the grove,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They were carrying torches, lanterns and weapons.
- 4 Jesus, knowing all t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went out and asked them, "Who is it you want?"
- 5 "Jesus of Nazareth," they replied. "I am he," Jesus said. (And Judas the traitor was standing there with them.)
- 6 When Jesus said, "I am he,"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 7 Again he asked them, "Who is it you want?" And they said, "Jesus of Nazareth."
- 8 "I told you that I am he," Jesus answered. "If you are looking for me, then let these men go."
- 9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ds he had spoken would be fulfilled: "I have not lost one of those you gave me."
- 10 Then Simon Peter, who had a sword, drew it and struck the high priest's servant, cutting off his right ear. (The servant's name was Malchus.)
- 11 Jesus commanded Peter, "Put your sword away!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6월 19일 월요일

John 18:12~27

- 12 Then the detachment of soldiers with its commander and the Jewish officials arrested Jesus. They bound him
- 13 and brought him first to Annas, who was the father-in-law of Caiaphas, the high priest that year.
- 14 Caiaphas was the one who had advised the Jews that it would be good if one man died for the people.
- 15 Simon Peter and another disciple were following Jesus. Because this disciple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he went with Jesus into the high priest's courtyard,
 16 but Peter had to wait outside at the door. The other disciple, who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came back, spoke to the girl on duty there and brought Peter in.
 17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the girl at the door asked Peter. He replied, "I am not."
 18 It was cold, and the servants and officials stood around a fire they had made to keep warm. Peter also was standing with them, warming himself.
 19 Meanwhile, the high priest questioned Jesus about his disciples and his teaching.
 20 "I have spoken openly to the world," Jesus replied. "I always taught in synagogues or at the temple, where all the Jews come together. I said nothing in secret."
 21 Why question me? Ask those who heard me. Surely they know what I said."
 22 When Jesus said this, one of the officials nearby struck him in the face. "Is this the way you answer the high priest?" he demanded.
 23 "If I said something wrong," Jesus replied, "testify as to what is wrong. But if I spoke the truth, why did you strike me?"
 24 Then Annas sent him, still bound, to Caiaphas the high priest.
 25 As Simon Peter stood warming himself, he was asked,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He denied it, saying, "I am not."
 26 One of the high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challenged him,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olive grove?"
 27 Again Peter denied it, and at that moment a rooster began to crow.

6월 20일 화요일

John 18:28~40

28 Then the Jews led Jesus from Caiaphas to the palace of the Roman governor. By now it was early morning, and to avoid ceremonial uncleanness the Jews did not enter the palace; they wanted to be able to eat the Passover.
 29 So Pilate came out to them and asked, "What charges are you bringing against this man?"

30 "If he were not a criminal," they replied, "we would not have handed him over to you."
 31 Pilate said, "Take him yourselves and judge him by your own law." "But we have no right to execute anyone," the Jews objected.
 32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ds Jesus had spoken indicating the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 would be fulfilled.
 33 Pilate then went back inside the palace, summoned Jesus and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34 "Is that your own idea," Jesus asked, "or did others talk to you about me?"
 35 "Am I a Jew?" Pilate replied. "It was your people and your chief priests who handed you over to me. What is it you have done?"
 36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it were,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my arrest by the Jew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37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38 "What is truth?" Pilate asked.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39 But it is your custom for me to release to you one prisoner at the time of the Passover. Do you want me to release 'the king of the Jews?'"
 40 They shouted back, "No, not him! Give us Barabbas!"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 rebellion.

6월 21일 수요일

John 19:1~11

1 Then Pilate took Jesus and had him flogged.
 2 The soldiers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put it on his head. They clothed him in a purple robe
 3 and went up to him again and again,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truck him in the face.
 4 Once more Pilate came out and said to the Jews, "Look, I am bringing him out to you to let you know that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5 When Jesus came out wearing the crown of

thorns and the purple robe, Pilate said to them, "Here is the man!"

- 6 As soon as the chief priests and their officials saw him, they shouted, "Crucify! Crucify!" But Pilate answered, "You take him and crucify him. As for me,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 7 The Jews insisted, "We have a law, and according to that law he must die, because he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 8 When Pilate heard this, he was even more afraid,
- 9 and he went back inside the palace. "Where do you come from?" he asked Jesus, but Jesus gave him no answer.
- 10 "Do you refuse to speak to me?" Pilate said. "Don't you realize I have power either to free you or to crucify you?"
- 11 Jesus answered, "You would have no power over me if it were not given to you from above. Therefore the one who handed me over to you is guilty of a greater sin."

6월 22일 목요일

John 19:12~22

- 12 From then on, Pilate tried to set Jesus free, but the Jews kept shouting, "If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 friend of Caesar. Anyone who claims to be a king opposes Caesar."
- 13 When Pilate heard this, he brought Jesus out and sat down on the judge's seat at a place known as the Stone Pavement (which in Aramaic is Gabbatha).
- 14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of Passover Week, about the sixth hour. "Here is your king," Pilate said to the Jews.
- 15 But they shouted, "Take him away! Take him away! Crucify him!" "Shall I crucify your king?" Pilate ask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the chief priests answered.
- 16 Finally Pilate handed him over to them to be crucified. So the soldiers took charge of Jesus.
- 17 Carrying his own cross, he went out to the place of the Skull (which in Aramaic is called Golgotha).
- 18 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one on each side and Jesus in the middle.
- 19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 20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 21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the Jews."
- 22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6월 23일 금요일

John 19:23~30

- 23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 24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which said, "They divid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clothing."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 25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 27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 28 Later, knowing that all was now complet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 29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 30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6월 24일 토요일

John 19:31~42

- 31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 Because the Jews did not want the bodies left on the crosses during the Sabbath, they asked Pilate to have the legs broken and the bodies taken down.
- 32 The soldiers therefore came and broke the legs of the first man who had been crucified with Jesus, and then those of the other.
- 33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 34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 35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 36 These things happene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Not one of his bones will be broken,"
- 37 and, as another scripture says, "They will look on the one they have pierced."
- 38 Later,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s. With Pilate's permission, he came and took the body away.
- 39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five pounds.
- 40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with the spices, in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 41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n which no one had ever been laid.
- 42 Because it was the Jewish day of Preparation and since the tomb was nearby, they laid Jesus there.

6월 25일 주일

John 20:1~10

- 1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 2 So she came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the one Jesus loved,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 3 S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started for the tomb.
- 4 Both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 5 He bent over and looked in at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but did not go in.
- 6 Then Simon Peter, who was behind him, arrived and went into the tomb. He saw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 7 as well as the burial cloth that had been around Jesus' head. The cloth was folded up by itself, separate from the linen.
- 8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He saw and believed.
- 9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 10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their homes,

6월 26일 월요일

John 20:11~18

- 11 but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 12 and saw two angels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oot.
- 13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 14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 15 "Woman," he said,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 16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 17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 18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6월 27일 화요일

John 20:19~23

- 19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 20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 21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 22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 23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6월 28일 수요일

John 20:24~31

- 24 Now Thomas (called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 25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 26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 27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 28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29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30 Jesus did many other miraculous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recorded in this book.

31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6월 29일 목요일

John 21:1~14

- 1 Afterward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by the Sea of Tiberias. It happened this way:
- 2 Simon Peter, Thomas (called Didymus),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 disciples were together.
- 3 "I'm going out to fish," Simon Peter told them, and they said, "We'll go with you." So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 4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 5 He called out to them, "Friends, haven't you any fish?" "No," they answered.
- 6 He said,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When they did, they were unable to haul the net in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sh.
- 7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it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 8 The other disciples followed in the boat, towing the net full of fish,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about a hundred yards.
- 9 When they landed, they saw a fire of burning coals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 10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you have just caught."
- 11 Simon Peter climbed aboard and dragged the net ashore. It was full of large fish, 153, but even with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 12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 13 Jesus came,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did the same with the fish.
- 14 This was now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6월 30일 금요일

John 21:15~25

- 15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 16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 17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 18 Jesus said, "Feed my sheep.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 19 Jesus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Then he said to him, "Follow me!"
- 20 Peter turned and saw that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following them. (This was the one who had leaned back against Jesus at the supper and had said, "Lord, who is going to betray you?")
- 21 When Peter saw him, he asked, "Lord, what about him?"
- 22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 23 Because of this, the rumor spread among the brothers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But Jesus did not say that he would not die; he only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 24 This is the discipl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and who wrote them down. We know that his testimony is true.
- 25 Jesus did many other things as well. If every one of them were written down, I suppose that even the whole world would not have room for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6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한규삼 · 편집인 | 권영옥 · 집필진 | 이범구 이성환 이향란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